

‘문화가 있는 날’ 알고 계시죠?

“지난달 처음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혹시나 안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정말 5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었어요. 덕분에 회사 끝나고 친구랑 즐거운 영화 보면서 마음껏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설들에서 많은 할인 했으면 좋겠어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떠나는 문화여행 ‘문화가 있는 날’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오는 26일 3화제를 맞이하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광주·전남지역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영화관이 관람료 무료·할인 혜택과 함께 다양한 공연과 인문학 강좌 등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23일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 따르면 지난 1월(본보 1월22일자 13면) 문화가 있는 날 혜택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문화기관이 모두 16곳(광주 5곳, 전남 11곳)에서 124곳(광주 37곳, 전남 87곳)으로 늘었다.

지난 1월 2곳에 불과하던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광주 영화관은 모두 9곳으로 늘었다. CGV 용봉·철단·광주터미널점, 메가박스 광주 총정·하남점, 롯데시네마 수안·광주·상무·충장로점에서 당일 오후 6~8시 사이에 상영하는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후 8시까지 야간 개장하고, 오후 2~5시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규방 ‘전통손누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학예사가 오후 5시~6시30분 특집전 ‘통형칠기의 탄생-2000년 전 목공기술과 옷칠복원’을 주제로 뮤지엄 토크를 진행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3~5월 문화가 있는 날 야간까지 운영하고(오후 8시까지), 미술심리치료과정 등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지역 11개 공공도서관도 이날 하루 밤

10~11시까지 개방하고, 직장인 강좌, 손글씨 강좌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 고씨율놀이 영상체험관은 10명 이상 단체관람객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서구문화센터는 오후 7시 무료영화를 상영한다.

지난달 문화가 있는 날에 ‘발레리나 따라하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 매달 문화가 있는 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담양 대담미술관은 26일 오후 7시 ‘미술과 함께하는 소리질러 오페라’행사를 연다. 이태리 노바라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장희정 광주대 외래교수와 테너 김용덕 살레시오 초등학교 교사가 진행하는 이날 행사는 성악의 기본발성 따라하며 배우기, 자신만의 음표 찾기, 다양한 감정 표현으로 마음껏 소리 질러보기 등으로 꾸며진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는 학예사와 함께 특별전

미술관·박물관·공연장·영화관 등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무료·할인 관람

‘사진과 유물로 보는 남도의 고인돌’을 감상할 수 있다.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에서는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예술전 ‘생명은 아름답다’를 50% 할인된 3000원(성인 기준)에 관람할 수 있고, 담양 소쇄원 입장료도 50% 할인된다.

또 이날 오후 7시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전남 드래곤즈와 울산현대의 경기는 부모와 어린이(초등학생 이하)가 함께 관람할 경우 입장료가 51% 할인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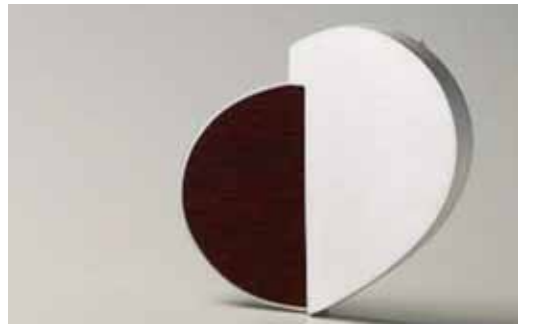


소프라노 장희정



테너 김용덕

이주현 작 ‘브로치-925’



‘기억 속의 흔적’

‘아트주얼리’전 오늘부터 515갤러리

아트주얼리는 다양한 종류의 금속들을 쪼개고, 비틀고, 결합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특히 일반적 인 보석과 달리 작가의 다양한 세계관과 기억들이 작품을 통해 재해석되는 것이 특징이다.

515갤러리는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금속공예가 이주현, 신혜림, 이숙현씨를 초대해 ‘금속공예 3인의 아트주얼리-기억 속의 흔적’전을 연다.

건국대 공예학과와 건국대 디자인대학원을 졸업한 이주현씨는 한옥과 나무에 대한 기억을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나무 고유의 결과 뾰얏게 반짝이는 은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신혜림씨는 국민대 공예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일본 ‘이따미 국제 장신구전’에서 베스트 메트리얼 상을 수상했고, 스와로브스키 작품 소품 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았다. 그는 겹겹의 가죽 단층들이 돋보이는 작품을 전시한다.

서울대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숙현(원광대 귀금속보석공예과 교수)씨의 작품은 기하학적이면서도 삼차원적인 구성이 돋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24일 오후 6시다. 문의 062-654-3003.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아동문학 창작론’

서향숙 씨 매주 수요일 무료 강의

아동문학에 관심 있는 이들을 위한 무료 강좌가 마련된다.

아동문학가 서향숙(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사진)씨는 15주 과정으로 ‘아동문학 창작론’ 특강을 진행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광주시청 2층 세미나 2실.

강의 내용은 동시 창작, 동화 창작, 그림책 창작, 소년 소설 창작, 시낭송 등이며 강의와 합평 형식으로 운영된다. 15주 강의가 끝나고 나면 스터디반을 운영, 강의 참가자들이 좋은 작품을 쓰도록 꾸준히 지도할 계획이다.

여수 출신으로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아동문학평론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온 서씨는 방정환문학상, 새빛문학상, 광주문학상 등을 받았다.

살레시오초, 남초교 등에서 오랫동안 어린이들을 가르쳐왔으며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광주교육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동시집 ‘연못에 놀러 온 빗방울’, 동화집 ‘날개 달린 사자’, 동요집 ‘시골 댁에’ 등을 펴냈다. 문의 010-2574-19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악방송 채치성 사장

“광주국악방송, 숨겨진 명인 이야기 담을 것”

광주국악방송(FM 99.3MHz)이 오는 26일 개국한다. 24시간 광고 없이 운영되는 광주국악방송은 진도·남원·부산 등 8개 지방 방송 중에서는 처음으로 프로그램도 자체 제작한다. 가정취권은 광주와 나주, 담양 일원이며 타 지역에서는 국악방송 홈페이지의 덤더쿱 플레이어를 다운 받아 들을 수 있다. 개국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국악방송 채치성(60) 사장을 만났다.

국악 전공자로 국악방송 창립 멤버에서 최고 수장의 자리까지 오른 채 사장은 시종일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국악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다.

“국악하면 광주인데 너무 늦게 개국한 감이 있지요. 광주 방송국이 남원, 진도를 포함, 앞으로 계속 들어설 전라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 국악의 지반이 탄탄하죠, 그 기운이 확 타오르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 개국 당시 편성팀장을 맡았던 채사장은 공연 실황을 중계하는 ‘FM국악당’, ‘상암골 상사디아’ 등을 출범시켰다.

“두 프로그램은 지금도 방송되는 장수 프로죠. 광주에서는 ‘빛고를 상사디아’라는 이름으로 방송될 겁니다. 광주 스튜디오에서는 작은 공연들이 열립니다. 지역의 명인들을 모셔다 연주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그려야죠. 지역 국악인들 중 음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녹음된 음원으로 자체 음반을 제작하셔도 좋고 국악방송 레이블로 음반을 제작, 유통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현재 중요 공연들을 중계하고 있으며 공연 실황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날 수 있다. 채사장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나 전남도립국악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의미있는 작품은 서울에서 중계치를 내려보내 전국에 방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국악방

송이 꼭 해야할 프로죠. 지역의 숨겨진 명인들의 삶이 있는 이야기를 생생히 담아내 귀한 자료로 남겨야죠. 최근에 이은관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도 국악방송이 축적해 놓은 자료를 활용해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국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한 채 사장은 1981년 KBS PD로 입사, 1FM에서 국악, 클래식 프로 등을 제작했으며 국악전문 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채 사장은 작곡집 CD ‘나의 노래’(2006)를 출판했으며 국악가요 ‘꽃본네야’는 노래방에서도 만날 수 있다. 또 2남 1녀 모두 국악을 전공한 국악 가족이기도 하다.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김영임, 이생강, 김영재 등 명인들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국악단이 참여하는 축하공연 ‘빛고를, 무들의 국악이어’(생중계)가 열린다. 공연문의 062-602-9310. /김미은기자 mekim@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UILDING ENGINEER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필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헬렌티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